설화의 미디어 기능과 지명전설의 인문지리 정보*

임재해**

|| 차례 ||

- I. 미디어로서 설화의 정보 공유 기능
- II. 설화의 미디어 자질과 기능의 탁월성
- III. 지명유래와 지명전설의 정보전달 기능
- IV. 다중적 지명 유래와 전설의 인문지리 정보
- V. 지명의 시공간적 층위와 미디어로서 미래

【국문초록】

설화는 언어의 기능을 확장한 미디어 구실을 한다. 어떤 지식이나 정보가 설화에 담기면 널리 전파되고 오래 전승되어 공유의 시공간적 폭이 확대된다. 지명은 일정한 지리 정보를 담고 있지만, 지명유래와 지명전설로 나아갈수록 그 정보의 양이 풍부하고 질이 높아지며 다양한 인문지리 정보를 담게 된다.

지명은 고유명사로서 하나의 뜻만 지닌 것이 아니라, 한 장소에 지명이 여럿인 경우, 한 지명에 유래와 전설이 여럿인 경우, 한 전설에 여러 지명의 유래가 밝혀지는 경우 등 다양하다. 지명을 고유명사로 보면 하나가 정상이지만 그 지역의 인문지리 정보를 담고 있는 미디어로 보면 여럿을 인정해야 한다. 지명이 시대와 계층, 역사적 사실 등을 반영하는 까닭에 다양성을 인정할수록 인문지리적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지명전설에는 지리적 위치 정보는 물론, 그 지역의 역사와 종교, 사회, 인물, 문화 등에 대한 풍부한 인문지리 정보가 담겨 있다. 지명전설을 주목하면 잃어버린 역사를 찾을

* 이 글은 <국어국문학 속의 인문지리>를 주제로 한민족어문학회 '창립40돌기념 전국학술대회'(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 2014년 11월 29일)에서 기초발표한 내용을 논문집 편집기준에 맞게 분량을 크게 줄여서 수정한 것이다.

** 안동대학교 민속학과 교수.

수 있을 뿐 아니라, 구비문학으로서 인문학적 지식과 정보를 다각적으로 포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명전설을 조사연구하면 한자 지명에 나타난 지배층의 가치관과 다른 민중들의 세계관을 해명할 수 있다.

지명과 지명전설은 특정 지점을 찾아가는 지리적 좌표가 아니라, 역사와 문화와 철학의 공간을 만나고 인식하는 인문지리 정보의 박물관이다. 그런데 지금 개편된 도로명 주소는 인문지리 정보를 담고 있는 지명을 말살하고 있다. 인문학계에서는 도로명 주소를 반대하는 운동과 함께, 지명 유래와 전설 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여 인문지리 정보를 총체적으로 수집하고 보존하는 운동을 벌여야 마땅하다. 왜냐하면 지명자료가 담고 있는 인문지리 정보야말로 땅의 인문학문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다.

주제어 : 지명전설, 인문지리, 미디어, 세계관, 도로명 주소, 땅의 인문학문.

I. 미디어로서 설화의 정보 공유 기능

설화의 속성은 이야기이다. 대화로서 이야기(談,talk)가 아니라 서사로서 이야기(譚,story)가 설화이다. 그러나 서사로서 이야기인 까닭에 설화가 대화로서 이야기가 아니라 하는 것은 잘못이다. 대화로서 이야기가 창조적으로 나아간 것이 서사로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서사로서 이야기는 대화로서 이야기를 겸하고 있으며, 대화의 한계를 넘어서 서사문학성을 띠는 것이다. 따라서 설화의 속성에서 서사성 또는 서사문학성만 주목할 수 없다. 더 효과적인 대화를 하기 위해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설화를 끌어오기도 하는 까닭이다. 대화로서 이야기를 더 절실하고 더 감동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서사로서 이야기이다. 그러므로 서사로서 이야기는 대화로서 이야기의 확장이라 할 수 있다.

작가가 독자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서사문학으로 형상화하여 발표하

는 것처럼, 이야기꾼도 좌중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설화로 형상화하거나 또는 전승되고 있는 설화를 끌어와서 이야기한다. 따라서 같은 설화라도 이야기하는 사람에 따라서 담고 있는 메시지가 달라지고, 듣는 사람에 따라서도 받아들이는 메시지가 달라진다. 그것은 이야기꾼의 이야기 역량이나 듣는 사람의 청취력이 서로 다른 까닭이기도 하지만, 설화로 들려주려는 의도가 사람마다 다르고 설화를 받아들이는 마음가짐도 제각기 서로 다른 까닭이다. 이러한 언어 소통의 문제는 의사교환 일반이 가지는 성격이어서 특별하지 않다. 그러므로 설화의 구연과 수용도 대화의 속성에서부터 서사문학의 형상성까지 다양한 폭을 이루고 있다.

새삼스러운 사실을 다시 말하는 것은 설화의 미디어 기능을 주목하기 위해서이다. 미디어는 주체의 의사나 감정 또는 지식과 정보를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는 수단을 일컫는 것이다. 따라서 언어는 인간이 누구나 공유하고 있는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보편적인 미디어이다. 맥루한(Marshall McLuhan)이 ‘미디어는 메시지’라고¹⁾ 한 것처럼, 언어는 상대방에게 일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가장 오래되고 편리한 미디어이자 가장 기본적인 미디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언어의 기능을 확장한 설화는 더 효과적이고 더 발전된 미디어 구실을 하는 셈이다.

미디어에서 특히 문제되는 것이 대중매체로서 신문과 방송, 잡지, 영화 등이다. 양자 사이의 소박한 메시지 전달이 아니라 일시에 여러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전파력과 영향력이 큰 매체를 미디어로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전통 대중매체와 달리 뉴미디어 또는 디지털 미디어라 하여 다양한 통신기술과 컴퓨터 기술, 인터넷의 발전에 따라 개발된 비디오텍스(videotex), 문자 방송, PC통신, 텔레터미널(teleterminal), 인터

1) 마셜 맥루언, 김성기·이한우 역, 『미디어의 이해』, 민음사, 2002, p.35.

넷, e-북, 비디오 게임, 애니메이션, SNS 등을 두루 일컫는다. 그러므로 말과 글이 메시지 기능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지만 미디어학계에서는 미디어로서 크게 주목하지 않는다.

설화는 말과 글의 기본적인 언어활동 기능을 넘어서다. 일정한 이야기 줄거리는 방송 드라마처럼 재미있다. 따라서 전파(電波) 없는 전파(傳播)로 널리 확산될 뿐 아니라, 설화 속에는 수많은 정보들이 담겨 있고 구연과정에서 새로운 정보를 담을 수도 있다. 설화가 구연되는 이야기판에서는 이야기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가 이루어져서 일정한 ‘미디어 체계’를 이룬다. 왜냐하면 “미디어 시스템 안에서 오가는 정보는 협력(collaboration)과 참여(participation) 행동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기²⁾ 때문이다. 그러므로 설화는 유형적인 미디어 기기나 전파(電波)와 같은 매질(媒質) 없이 인간관계망의 형태로 설화가 담고 있는 정보와 지식을 끊임없이 확산하고 교류하며 공유하는 미디어라 할 수 있다.

II. 설화의 미디어 자질과 기능의 탁월성

미디어학계에서는 최소한의 미디어 자질을 갖춘 언어를 논의의 대상에서 주변화하는 반면에, 언어가 일정하게 형상화되거나 다른 양식과 결합하여 전달되는 매체를 미디어의 주요 영역으로 주목한다. 미디어로서 자질이 복합적이고 기능이 최대한으로 발휘되는 것을 미디어의 주요 대상으로 다루는 까닭이다. 따라서 매스컴의 대중매체와 뉴미디어의 다중소통 매체가 미디어의 본령처럼 문제되고 있다. 설화도 이러한 미디어의 자질과 기능을

2) 김은미, 『미디어 생태계의 인간, 정보, 정보관계망』, 『미디어 생태계』(김대호 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1, p.66.

갖추고 있어서 가) 대중매체처럼 메시지의 대량 전달 기능과 나) 다양한 정보 저장 기능은 물론, 다) 무상 공유의 양방향 소통 기능까지 발휘한다.

과연 설화는 예사 언어활동과 다른 미디어로서 자질과 기능을 두루 갖추고 있는가. 설화의 구조와 내용, 구연상황, 전승력 등을 제대로 포착하고 있는 이들은 구체적인 논증 없이 어느 정도 공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미디어다운 자질은 무엇이며 어떤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가 하는 사실은 더 자세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설화를 새롭게 인식하는 작업 과정이기도 하다. 설화의 대중매체다운 파급력은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대량 전달에 의한 확산으로 공간적 파급력을 지닌다는 사실이다. 설화는 누가 들어도 재미있는 까닭에 한번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들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게 되는 것이다. 흥미로운 이야기일수록 여러 사람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들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왜냐하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재미있어 하는 까닭에 이야기꾼은 이야기를 거듭하게 되며, 상대적으로 이야기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야기를 하고 듣는 즐거움 때문에 이야기는 끊임없이 공간적으로 전파되게 마련이다. 설화가 국제적 확산력을 지닐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널리 공유되는 까닭도 서사적 흥미가 발휘하는 전파력과 전승력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둘은 설화의 정보 저장과 자동자기복제 능력이 첨단미디어나 다름없다는 점이다. 어떤 설화든 한번 들으면 거의 자동적으로 기억된다. 그만큼 이해하기 쉽고 기억하기 쉽도록 구조화되어 있다. 구조화되어 있다는 것은 서사적 개연성이 일정한 인과논리를 이루고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실마리만 기억하면 결말까지 자동으로 연상될 수 있어서 누구든지 쉽게 구연할 수 있는 것이 설화의 서사구조이다.

설화에는 역사적 사실이나 종교적 믿음, 문학적 상상력, 철학적 깨달음, 사회적 문제의식, 지리적 정보 등 세상의 어떤 지식도 담을 수 없는 것이 없다. 각종 정보와 지식이 그 자체로 있으면 소멸되거나 공유되지 않는데 설화의 구조 속에 담겨 있으면 쉽게 사라지거나 개인의 지식으로 독점되지 않는다. 설화는 미디어처럼 전달되고 공유되는 자력적 전파 기능이 있는 까닭이다. 따라서 널리 전달하고자 하는 세상의 지식과 두루 공유할 만한 삶의 정보들을 설화 속에 갈무리하여 두었다가, 필요할 때 수시로 꺼내다 쓰고 있는 것이 설화의 구연상황이라 할 수 있다. 설화의 세계는 책 없는 무형 도서관이자, 컴퓨터 없는 무형의 서버 클라우드(cloud)와 같은 것이다. 이야기꾼이 조성되면 누구든 꺼내다가 좌중과 공유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설화의 서사구조 속에 수많은 정보들이 갈무리되어 구비전승되는 까닭에 설화는 탁월한 첨단 미디어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은 설화는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뉴미디어처럼 즉석에서 양방향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설화는 고정적 실체가 아니라 이야기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에서 그때마다 다르게 존재하는 가변적 실체이다. 왜냐하면 이야기꾼이 듣는 사람들을 고려하여 이야기할 뿐 아니라, 듣는 사람들도 듣기만 하지 않고 이야기에 자유롭게 개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입양상도 다양하여 적극적으로 맞장구도 치고 의문도 제기하며 때로는 이야기 내용을 부정하기도 한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도 좌중에 의해 교정되는 자동교정 능력이 있다.³⁾ 좌중의 반응은 마치 ‘좋아요’를 누르기도하고 댓글을 달기도 하는 facebook 기능과 상당히 닮았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야기꾼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야기를

3) 임재해, 『설화의 사료적 성격과 새 역사학으로서 설화연구』, 『역사민속학』12, 한국역사민속학회, 2001, pp.243-276 참조.

듣고 있던 청중도 이야기꾼 노릇을 할 수 있다. 이야기꾼인가 하면 청중이고 청중인가 하면 이야기꾼이다. 서로 대등하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까닭이다. 한 이야기를 두고 이야기꾼과 청중으로서 양방향 소통을 하지만, 제각기 자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야기꾼으로서 소통하기도 한다. 한 이야기를 두고 논쟁을 하기도 하고, 저마다 자기 이야기를 내세우면서 설화의 내용으로 논쟁을 벌이기도 한다. 누구든지 이야기의 주체로서 자기 주장을 펼칠 수 있다.⁴⁾ 그러므로 설화는 사실상 뉴미디어 이상으로 민주적인 의사소통 기능을 발휘한다.

설화는 미디어 자질을 갖추고 끊임없이 메시지를 전달하며 확산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설화는 미디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설화를 미디어로 은유한다고 해서 설화를 새롭게 이해하는 길이 열리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맥루한이 ‘미디어는 메시지이다’라고 하여 미디어가 새롭게 이해된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미디어가 왜 메시지인가 하는 것이 납득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가 생생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맥루한은 텔레비전이 눈의 확장이고 라디오가 귀의 확장인 것처럼, 특정 감각의 확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을 미디어라고 했다.⁵⁾ 결국 미디어란 의사소통 기능을 효과적으로 확대시키는 수단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자기 상품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미디어를 이용하여 각종 홍보를 하는 것이다. 대중매체가 없었던 시절에는 설화가 신문이나 방송 못지않은 미디어 기능을 전적으로 담당했다. 유명해지려면 신문방송과 같은 대중매체에 자주 등장해야 하는 것처럼, 과거에는 설화미디어에 등장해야

4) 임재해, 『구비문학의 연행론, 그 문학적 생산과 수용의 역동성』, 『口碑文學研究』7, 한국구비문학학회, 1998.; 임재해, 『구비문학의 연행자와 연행양상』, 박이정, 1999, pp.19-22 참조.

5) 마셜 맥루언, 김성기·이한우 역, 앞의 책, pp.35-55 참조.

한다.

누구든 텔레비전에 출현을 자주할수록 인지도가 더 높아지는 것처럼, 예전에는 인물전설의 주인공이 될수록 그 명성이 널리 알려져서 유명한 인물로 인식되었다. 요즘 명사들이 매스컴에 등장하듯이, 전통사회의 탁월한 인물들은 전설의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훌륭한 행적에 비례하여 인물전설의 내용도 다양한 유형으로 전승된다. 퇴계전설은 문헌에 150여 편, 구전되는 것이 190편 등 모두 3백 40여 편에 달한다.⁶⁾ 퇴계는 역사적 인물답게 전국적으로 널리 전승되는 인물전설의 주인공이다. 방학중은 역사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지만 영덕지역에 그의 전설이⁷⁾ 널리 전승되고 있다. 따라서 영덕지역에서는 퇴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있어도 방학중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방학중전설이 지역사회에 널리 전승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아도 설화미디어로 전승되는 인물은 역사적 인물로 살아있게 마련이다. 이것이 설화의 탁월한 미디어 자질이자 기능이다.

Ⅲ. 지명유래와 지명전설의 정보전달 기능

설화의 갈래 가운데 전설은 특별한 사실을 근거로 이야기가 짜여 있다는 점에서 사실에 대한 의문을 해명하는 기능을 한다. 역사전설이 역사적 사실을 효과적으로 전승하고 인물전설이 특정 인물의 삶과 사상을 다각적

6) 강재철·홍성남·최인학 편, 『退溪先生 說話』, NOSVOS, 2011, pp.29-49 참조. 이 책은 퇴계설화 자료를 집대성한 것이다.

7) 조정현, 『방학중 전설자료』, 『천하잡보 방학중의 해학과 풍자』, 민속원, 2014, p.321의 통계에 따르면 167편이다.

으로 조명하는 것처럼, 지명전설은 지리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여러모로 알려준다. 그러나 지명유래와 전설을 다룬 기존 연구들은 지리적 정보보다 역사적 사실과 문학적성, 민중의식을 밝히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

기존연구를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역사적 사실을 해명하는 사료로 다룬 연구, 둘은 지명전설 자체의 생성과 구조를 밝히는 연구, 셋은 지명전설의 풍수지리 내용을 해석한 연구, 넷은 지명전설을 활용하는 방안 연구 등이다.

지명전설을 역사적 사료로 삼아 왕조사의 분기점을 해명한 두 연구가 서로 관련성을 지니고 있어 주목된다. 하나는 고려말 공양왕에 관한 지명전설을 대상으로 조선왕조로 격변하는 시기의 민중의식과 공양왕을 지역 수호신으로 신앙하는 지역문화를 밝힌 연구이다.⁸⁾ 비운의 왕릉을 관리하고 지역수호신으로 모시는 것은 민중의 저항적 정치의식이자 민속신앙의 한 양식이다. 둘은 조선 태종이 황성에 가서 잔치를 베풀고 조정에 불만인 민심을 달랜 사실을 밝힌 연구이다.⁹⁾ 고려왕조를 멸망시키고 개국한 조선 왕조에 대한 비판적 민중의식이 포착된다. 두 연구는 서로 대조되는 왕조와 지역을 대상으로 지명전설을 역사적 사료로 해석하는 공통점을 지녔으며, 앞의 연구는 현재 공동체신앙의 내력까지 밝혔다.

역사적 연구와 달리, 지명전설 자체에 관심을 기울인 연구는 생성적 연구와 구조적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생성적 연구는 전설이 있어서 지명이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지명에서 지명전설이 생성되었다는 것이다.¹⁰⁾

8) 김정하, 「정치인식과 민간신앙에 의한 삼척의 지명 고찰」, 『江原民俗學』22, 강원도 민속학회, 2008, pp.77-98.

9) 이영식, 「황성의 지명전설과 태종의 관련성 연구」, 『江原民俗學』20, 강원도민속학회, 2006, pp.463-481.

10) 이홍숙, 「지명에서 생성된 전설들」, 『士林語文學研究』17, 士林語文學會, 2007, pp.135-162.

지명이 전설 생성의 화소가 되었다는 사실을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거듭 밝힘으로써, 지명전설에 따라 지명이 형성되었다는 고정관념을 깨뜨렸는데,¹¹⁾ 그 반대 상황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 그런데 역사적 사실 여부를 따지는 지명전설 연구는 그러한 가능성을 차단한다.

김부대왕이 김부리에 살았다는 김부리전설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지명전설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 이름에 걸맞게 허구적 사건을 지어냈다는 해석을 할 뿐 아니라, 전설보다 지명이 앞선다는 지명선행설을 일반화하기에 이른다.¹²⁾ 그러나 역사적 사건이 있는 다음에 지명이 지어지거나 지명이 바뀌는 사례도 적지 않다. 그러므로 지명과 전설의 선후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선행설과 후행설, 동시설이 함께 존재하는 것으로 다양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지명전설의 구조에 주목한 연구는 지명과 전설의 관련성보다 지명전설의 서사적 전개양상을 대립구조로 분석하고 설화 담당층의 논쟁적 의식이 문학적으로 표현되는 양상을 해명하였다.¹³⁾ 지명전설의 문학적 연구를 표방했으나 대가야지명전설을 대상으로 한 까닭에 전승자의 역사의식이 문제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어떤 지명전설을 다루는가 하는 것이 사실상 논지를 결정한다.

셋은 풍수 관련 지명전설을 다룬 연구이다. 자연히 풍수지리설에 관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 풍수지리 전설을 연구하면서 명당을 잡아 발복한

11) 이홍숙, 『경남 지명전설의 생성적 의미와 활용방안』, 『鄕土史研究』15, 韓國鄕土史研究全國協議會, 2003, pp.89-115.

12) 전신재, 『인제군의 지명전설』, 『江原民俗學』22, 강원도민속학회, 2008, pp.277-297.

13) 신태수, 『지명전설의 구조와 의미 -고령 지방의 전설을 중심으로-』, 『문학과 언어』, 文學과 言語研究會, 1989, pp.69-105.

사실에 치우치지 않고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보완하는 생태학적 해석으로 나아간 것은¹⁴⁾ 바람직한 성과이다. 풍수전설이 명당론이나 발복론에 빠지게 되면 민속신앙 연구에 해당되지만, 자연보호와 환경보존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상투적 풍수설을 극복하는 생태학적 지리학에 이를 수 있다.

넷은 지명전설의 활용방안 연구이다. 지명전설의 스토리뱅크를 구축하고 전설 체험코스를 개발하며, 전설을 소재로 마을축제를 만들고, 지명전설 관련 상품을 개발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만들자는 것이다.¹⁵⁾ 다른 내용들은 상투적인 것이어서 특별히 지명전설 활용방안이라 할 수 없지만, 지명전설 체험코스로 걷기여행을 하며 현장에서 지명전설을 듣는 것은 상당히 효과적인 활용방안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지금은 걷기여행이 주목을 받고 있는 까닭에 걷는 현장의 지명과 관련된 이야기를 듣는 것은 걷기여행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지명전설을 인문지리의 정보로 다룬 논지는 보이지 않는다. 지명전설은 물론, 지명과 지명유래도 이미 지리에 관한 일정한 정보를 담고 있다. 모든 이름이 일정한 대상을 일컫는 기호이기 때문에 지명 또한 해당 땅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갈무리하고 있는 것이다. 지명에서 지명유래, 지명전설로 나아갈수록 지리에 관한 정보가 더 풍부하다. 지명이 단순한 자연지리 정보를 담고 있다면 지명전설은 한층 복잡하고 풍부한 인문지리 정보를 담고 있다. 그러므로 역사나 풍수 연구로 한정할 수 없는 인문학문 지식의 폭을 지니고 있는 것이 지명전설이다.

지명이 땅에 대한 정보를 지녔다면, 지명전설은 인문지리의 정보를 지닌

14) 심민호, 『지명유래담에 나타난 풍수지리적 사고』, 『민속학연구』17, 국립민속박물관, 2005, pp.21-44.

15) 홍성규, 정미영, 『서울지역 지명전설의 사례와 콘텐츠 활용 방안』,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3권 12호, 한국콘텐츠학회, 2013, pp.507-518.

창고라 할 수 있다. 지명에는 지리에 관한 최소한의 정보가 담겨 있다. ‘앞산’이나 ‘웃마’처럼 지명을 들으면 그 정보를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보통 명사처럼 쓰이는 지명은 부연 설명이 불필요하다. 그러나 지명 자체로 의미 설명 기능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명풀이가 있어야 한다. 지명에 관한 풀이는 흔히 지명유래로 일컬어진다. 지명유래가 서사적 형상성을 갖추어 하나의 이야기 구조를 이루게 되면 지명전설이 된다. 그러므로 지명에서 지명유래, 지명전설로 갈수록 해당 지리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이 풍부하게 담겨 있다. 가장 기본적 형태의 지명부터 보자.

지명 자체가 지리적 정보 구실을 하므로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새로 생긴 마을은 ‘새터’ 또는 ‘새마’, 마을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큰마’, 북쪽 산기슭에 자리잡고 있는 마을은 ‘음지마’라고 일컫는다. 따라서 새마, 큰마, 음지마는 앞산이나 뒷산처럼 지명에 유래나 전설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아주 단순한 자연지리 정보를 담고 있는 까닭이다. 이런 지명들은 어디서나 만날 수 있어 거의 보통명사처럼 쓰인다. 그러나 절이 있었던 마을을 ‘절골’, 역이 있었던 마을을 ‘역마’, 서낭당이 있었던 골짜기를 ‘당골’이라 일컬을 때는 지명이 담고 있는 정보의 질이 다르다. 지명 자체에 이미 마을의 역사와 행정, 문화와 같은 인문지리 정보를 담고 있다.

지명유래는 지명에 대한 지리적 정보를 아주 간단하게 담고 있어서 말 풀이 수준에 머문다. 그러나 간단한 말풀이라도 설명이 없으면 지명만으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 하회마을 이름은 물이 마을을 휘돌아 흘러내리는 까닭에 붙여진 이름이다. ‘물돌이’ 마을을 한자말로 일컬으니 ‘하회(河回)’라는 지명을 얻게 된 것이다. 마을 앞에 내가 흐른다고 하여 ‘내가 앞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으로 내앞¹⁶⁾ 또는 천전(川前)이라고¹⁷⁾ 일

16) 사람에게 따라서 내가 마을 앞에 있는 말이 아니라 마을이 내 앞에 있는 말로 인식할 수도 있다.

견는다. 그리고 마을에 좋은 술이 많았다고 하여 ‘솔피’,¹⁸⁾ 향교가 있었다고 하여 ‘명륜동’, 역원(驛院)이 있었다고 하여 ‘제비원’,¹⁹⁾ 5층전탑이 있어서 ‘조탑리’,²⁰⁾ 산성이 있어서 산성리,²¹⁾ 풍수형국이 금계포란형(金鷄抱卵形)이라고 하여 ‘금계리’,²²⁾ 신라때 성진도사가 살았다고 하여 ‘성진골’²³⁾로 일컫는다.

‘하회’는 마을의 지형, ‘천전’은 마을의 입지, ‘솔피’는 마을의 식생 등 자연지리 정보를 담고 있고, ‘명륜’은 마을의 사회적 위상, ‘제비원’은 마을의 행정제도, ‘조탑’은 마을의 문화유산, ‘산성’은 마을의 역사유적, 금계는 마을의 풍수지리, ‘성진’은 승려의 이름 등 인문지리 정보를 담고 있다. 뒤로 갈수록 지명에 담긴 정보를 쉽게 포착하기 어렵다. 지명유래는 사실상 지명풀이에 지나지 않아서 지명 자체나 다름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간단한 풀이가 곁들여지지 않으면 지명이 정확하게 인식되지 않거나 다른 뜻으로 착각될 수도 있다. 그리고 지명유래는 지명전설과 함께 전승되거나 전설로 발전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실제로 제비원 전설과²⁴⁾ 금계리 전설,²⁵⁾ 성진골 전설은²⁶⁾ 상당히 풍부하다. 그러므로 지명유래는 지명과 지명전설 사

17) 임재해, 『인물과 자연이 어우러진 빼어난 모듬살이』, 『전통과 혁신의 마을 내앞』, 민속원, 2013, p.4.

18) 경북 안동시 송천동 솔피.

19) 경북 안동시 이천동 제비원.

20) 경북 안동시 일직면 조탑리.

21) 경북 예천군 보문면 산성리.

22) 경북 영주시 풍기읍 금계리.

23) 경북 안동시 신세동 성진골. 현재 벽화마을로 널리 알려졌다.

24) 임재해, 『제비원 전설의 설화문화학적 해석과 성주신앙의 본향 인식』, 『전설과 지역 문화』, 민속원, 2002, pp.261-294.

25) 임재해, 『풍기지역 구비문학의 전승양상과 지역적 성격』, 『民俗研究』3, 安東大學 民俗學研究所, 1993, pp.57-114의 글에서 금계리 전설 참조.

26) 임재해, 『안동의 비보풍수 이야기』, 민속원, 2004, pp.107-114 참조.

이에서 서로 유기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명유래는 지명의 말풀이 수준에 머물기 일쑤여서 서사적 형상을 갖추지 않고 있다. 따라서 어느 것이나 합리적 설명에 머물고 허구적 상상력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회나 내앞, 절골처럼 지명이 곧 지형이나 지리 정보를 압축한 경우 말풀이 수준을 넘어서는 초월적 경이나 창조적 상상력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자연지리 정보는 어느 것이나 합리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제비원을 비롯하여 금계리, 성진골처럼 지리적인 내용과 상관 없이 지명 자체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경우는 제법 서사적 구조를 갖춘 지명전설을 이룰 수 있다. 지리적 위치나 형상, 입지 등은 자연지리에 해당되는 것이며, 지명과 지명유래에다 충분히 답을 수 있으므로 전설적 창조력을 발휘할 필요도 없고 그러기도 어렵다.

그러나 지명이 특정 인물이나 역사, 종교, 문화, 사회적 갈등을 담고 있는 경우에는 전설적 창조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전설적 이야기가 있는 까닭에 자연지리와 무관한 인문지리적 지명으로 일컬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지명만 보면, 지명으로 그치는 지명, 지명유래가 있을 법한 지명, 지명전설까지 나아갈 만한 지명이 어느 정도 예측된다. 그러므로 실제 지리적 현장에 답사하면서도 알 수 없는 사실들을 지명의 정보를 통해서 포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명 자체가 일정한 정보를 담고 있는 미디어 구실을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주 단순한 지명이 실마리가 되어 고대의 역사 유적을 찾아내고 보물급 유물을 발굴한 사례가 있다. 통일신라시대 후기의 사찰인 ‘임하사지(臨河寺址)’ 발굴이 그러한 보기이다. 안동의 지방지인 『영가지(永嘉誌)』에 임하사 전탑(塼塔)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 사실을 주목한 이진구 씨는 안동시 임하면(臨河面)과 임하리 일대를 샅샅이 조사했으나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므로 지명조사로 얻은 여러 가지 관

런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나는 안동시 옥동에서 구비문학 조사를 하던 중에 ‘하이마’의 지명유래를 두 가지 수집하였다. 그 지명전설 가운데 하나가 임하사지를 찾는 단서가 되었다. 학의 마을에서 유래되었다는 ‘하이마 전설’ 외에, ‘하이마’는 아랫 임하(臨河)라는 뜻의 ‘하임하(下臨河)’라는 지명유래를 들은 것이다. 안동시 동남쪽인 낙동강 위쪽에 ‘임하’가 있으므로 시의 서쪽에 낙동강을 끼고 있는 하이마는 바로 아래 임하라는 뜻으로 ‘하임하’ 곧 ‘하이마’라 일컫는 것이었다.²⁷⁾

따라서 안동의 동쪽에 있는 임하면 일대에서 임하사와 전탑을 열심히 찾아다니는 이진구씨에게 안동부의 서쪽 7리에 있다는 『영가지』의 기록을²⁸⁾ 상기시키며, 안동시 서쪽에 자리하고 있는 ‘하임하’의 지명을 가르쳐 주었다. 왜냐하면 하임하에 있는 사찰도 지명에 따라 임하사로 일컬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임하라고 하는 ‘하이마’는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어디서 임하사지를 찾아야 할지 막연했다. 그런데 하임하에서 현지 조사를 할 때, 이 마을에는 열두 골짜기가 있는데 그 가운데 ‘절골’이 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다.

따라서 나는 이진구씨에게 하이마의 절골 일대를 조사하면 임하사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의했다. 그 결과 이진구씨는 마침내 절골을 찾아가 현장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 발견을 계기로 임세권 교수가 임하사 전탑지(塼塔址)를 발굴하게 되었으며, 보물급의 은제 사리 장치까지 수습하는

27) 임재해, 「내려오는 전설」, 안동시 편, 『내 고향의 자취』, 안동시, 1982, pp.102-103, ‘학의 마을 하이마’.

28) 『永嘉誌』, ‘古蹟’조에 임하사는 “府의 서쪽 7리에 있다. 白虎山이 물에 떠내려가는 형국으로 이 절이 산을 눌러서 떠내려가지 못하도록 하였다.”(『國譯 永嘉誌』, 安東青年儒道會, 1996, p.342) 영가지는 17세기 초에 원고가 완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이미 임하사는 없어졌다고 했다.

성과를 거두었다.²⁹⁾ 결국 지명과 지명유래에 관한 정보가 임하사 전답지 발굴의 결정적인 구실을 하였던 것이다.³⁰⁾ 그러므로 ‘절골’의 지명과 ‘하이마’의 지명유래는 임하사 전답지에 관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인문 지리적 정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명과 지명유래처럼, 지명유래와 지명전설도 분명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지명에 관한 내력을 간단히 설명한 것이 지명유래라면, 지명에 얽힌 내력을 설화적 구조를 갖추어 이야기하는 것은 지명전설이다. 따라서 지명유래가 합리적 내용의 문장 수준에 머문다면, 지명전설은 초월적 경이가 허구적 내용으로 형상화되어 서사문학 수준으로 나아간 것이다. ‘하이마’의 지명유래는 아랫입하라고 해서 ‘下臨河’라는 수준에 머물지만, 하이마의 지명전설은 구비문학으로서 서사적 구조를 갖추고 있다.

아버지 초상을 당한 상주가 지나가는 승려를 극진히 대접하여 묘터를 하나 잡았다. 승려가 명당을 잡아주며 이르기를 “큰 인물이 날 자리인데 여기에 묘를 쓰되 한 자만 파고 관을 묻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주는 승려의 말에 따라 광증을 파니 한 자 깊이에 너럭바위가 나왔기에 더 파지 않고 하관을 하려고 했다. 지켜보던 집안 어른들이 “광증을 더 깊이 파고 관을 묻어야지, 이렇게 얇게 파고 관을 묻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나무리는 바람에, 더 깊이 묻으려고 곡괭이로 바위 한쪽을 들어 올렸더니 그 틈으로 학이 한 마리 날아갔다. 깜짝 놀라 바위를 내려놓으니 두 번째 학이 날아오르다가 바위에 끼어 다리를 다쳤다. 그렇게 묘를 쓰고 나서 후손이 다리를 다쳐 절게 되었다. 학이 날아간 마을이라고 해서 ‘학의 마’라고 했는데, 학의 마가 변해서 ‘하이마’가 되었다.³¹⁾

29) 任世權, 『臨河寺塔塔址』, 安東大學博物館, 1988는 그 결과로 나온 발굴보고서이다.

30) 임재해, 『설화의 사료적 성격과 새 역사학으로서 설화연구』, 『역사민속학』12, 역사민속학회, 2001, p.263.

31) 이 이야기는 그때 조사한 자료를 보지 않고 기억나는 대로 재구성한 것이다. 왜냐하

풍수사의 비범한 지리적 안목과 학을 품고 있는 땅의 경이로움이 얽혀 있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예사사람들의 일상적 지식에 의해 비범한 안목이 부정되고 다수의 상식이 관철된다. 그 결과 명당의 영험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불행한 결말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초월적 경이가 현실에 부딪혀서 좌절하는 전설의 구조를 잘 갖춘 이야기라 할 수 있다.

이 전설은 하이마의 지리적 정보에 관해서 전혀 말하지 않고 지명의 내력을 허구적 창조력으로 이야기한다. 실패한 명당전설을 미디어로 삼아서, 하이마 사람들의 한계를 나타낸 것이다. 하이마는 원래 지리적으로 큰 인물이 날 명당 마을인데 사람들이 명당을 알아보지 못해 예사마을처럼 인물이 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훌륭한 인물이 배출되려면 상식을 뛰어넘는 파격적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전설은 명당에 대한 문학적 상상력을 발휘한 인문지리 정보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상식적 인간의 한계를 담고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임하’의 아랫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서 ‘하임하’라고 하는 지명유래가 지리학이나 국어학의 관심거리라면, 학의 마을이라는 지명전설은 구비문학으로서 국문학의 연구과제라 할 수 있다.

구비문학인 지명전설에서 문제되는 지명들은 제비원, 금계리, 성진골, 천등산, 남매지, 하이마 등과 같이 지명 자체에 지리적 정보가 전혀 담겨 있지 않다. 지리적 정보가 지명화된 것이 아니라 인문지리적 정보가 지명화된 까닭이다. 천등산(天燈山)과 남매지(男妹池)의 지명전설을 구체적으

면 설화미디어는 기록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하고 듣는 과정에서 터득한 정보를 기억하여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때 실제로 하이마전설을 어떻게 들었던 내 기억 속에 일정하게 저장되어 있다가 위와 같이 재구성되었다.

당시의 자료는 임재혜, 『내려오는 전설』, 『내 고장의 자취』, 안동시, 1982, pp.102-103 참조.

로 보자. 이 지명에서 천등(天燈)이나 남매는 지리적으로 제공할 만한 어떤 정보도 매개하지 않는다. 천등이나 남매에 얽힌 특별한 전설이 없다면 그렇게 지명으로 일컬어질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자연지리적 정보와 먼 지명일수록 인문학적 정보를 풍부하게 제공한다.

안동시 봉정사가 있는 산을 천등산이라 일컫는다. 의상조사가³²⁾ 이 산의 바위굴에서 도를 닦고 있을 때 아리따운 처녀가 밤마다 찾아와서 유혹을 했으나 단호하게 거절했다. 처녀가 사라진 뒤로 하늘에서 밤마다 등불이 내려와 의상조사가 수도할 수 있도록 굴을 밝혀주었다. 의상조사는 환한 등불을 보고 도를 깨치게 되었다. 따라서 굴 이름을 ‘천등굴’, 그 산의 이름을 ‘천등산’이라 일컬었다고 한다.³³⁾

이 전설은 천등굴과 천등산의 지명유래를 껴한다. 이름을 그렇게 지은 까닭을 이야기하는 지명전설일 뿐 지리전설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전설에는 천등산이나 천등굴에 대한 지리적 정보가 전혀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의상조사의 수도자다운 정진의 면모와 그것에 상응하는 천상계의 초월적 경이가 부각될 따름이다. 수도자의 탁월한 수행과 종교적 신이(神異)가 상응하는 신화적 구조의 불교전설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천등산 지명전설은 천등산에 대한 자연지리 정보가 아니라 인문지리적 정보만 제공하는 미디어 구실을 하는 것이다.

32) 이효걸, 『천등산 봉정사』, 지식산업사, 2000, p.21, “봉정사의 창건자는 의상이라는 설과 의상의 제자 능이라는 두 가지 설이 있다.”고 했다. 전설에서도 천등굴에서 수행한 승려는 의상조사(『嶺南의 傳說』)라고도 하고 능인대사(『永嘉의 脈』)라고도 한다.

33) 柳增善, 『嶺南의 傳說』, 螢雪出版社, 1971, pp.229-231, ‘천등산 천등굴’ 전설 및 『永嘉의 脈』, 安東郡, 1991, pp.151-152, ‘천등산 천등굴’ 전설을 참고하여 간략하게 요약하였다.

경산시 영남대학 앞에 있는 큰 못을 남매지라고 일컫는다. 못 근처에 고아
가 된 남매가 살았는데, 부자가 아버지의 빚을 갚지 않으면 누이를 첩으로
삼겠다고 했다. 그러자 동생이 한양에 가서 돈을 벌어서 빚을 갚을 테니 기다
려 달라고 부자와 약속을 하고 길을 떠났다. 동생이 한양에 가서 열심히 일하
여 돈을 모아 귀향하는데, 동생을 기다리던 누이는 약속한 날짜가 되어도 동
생이 돌아오지 않자, 부자에게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못에 뛰어들어 자결하
고 말았다. 뒤늦게 도착한 동생은 누이의 소식을 듣고 목이 메어 울다가 누이
의 뒤를 따라 못에 뛰어들어 죽었다. 사람들은 남매의 죽음을 기억하기 위하
여 이 못을 남매지라고 하였다.³⁴⁾

이 전설 또한 남매지라고 하는 저수지 이름의 유래를 밝힌 이야기일 뿐
자연지리적 정보는 전혀 담고 있지 않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남매지 전설
은 전국 어디에 있는 못이라도 상관없이 못이름 전설 구실을 할 수 있다.
주인공 남매는 착하고 성실한 사람인데도 가난한 환경과 부자들의 탐욕 때
문에 마침내 남매가 차례로 못에 빠져 죽는 이야기로서, 비극적인 결말의
전형적인 인물전설 구조이다. 착하되 가난한 남매의 죽음을 통해서 나쁘되
부자인 기득권층의 탐욕을 고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매지전설은 지명
전설이지만 지명에 대한 정보 자체와 상관없이 빈부와 강약, 상하, 노소의
위계구조로 이루어진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고발하는 미디어 기능을 한다.
다만 남매지라고 하는 저수지를 지명으로 빌어온 것은 몸을 던져 자결할
수 있는 지리적 공간으로서 필요했던 까닭이다.

천등산전설과 남매지전설은 다 같은 지명전설이지만, 전설적 구조의 형
식과 세계관적 가치의 차이가 꽤 대조적이다. 천등산전설은 봉정사를 창건
한 것으로 알려진 의상조사와 연관되어 있는 까닭에 지금의 천등산과 일정
한 긴밀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남매지전설은 구체적인 인물의 실체나

34) 『경산문화대사전』, 경산시립박물관, 2009의 남매지전설을 간략하게 요약하였다.

못의 정체성과 무관하게 이야기되는 까닭에 어떤 못이나 저수지를 대상으로 이 전설을 적용해도 문제가 없을 만큼 유동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지명전설 가운데 특정한 지리적 공간과 유기적 관계를 이루는 것과, 이루지 않는 것이 있다. 유기적 관계의 지명전설은 상대적으로 인문지리적 정보를 제공한다면, 비유기적 관계의 지명전설은 인문지리적 정보를 넘어서 인문학적 문제의식을 더 심각하게 제기한다고 할 수 있다.

천등산전설은 의상조사의 수도 정진이 초월적 경지에 이르러 종교적 신이로 나타났다는 전형적인 불교설화이다. 지명전설로서 천등산에 대한 자연지리적 정보를 담은 것이 아니라, 승려로서 의상조사의 남다른 수행과 불교의 영험한 이적을 숭고하게 그린 고승전에 해당되는 정보를 담은 것이다. 의상이 추구하는 귀족불교의 세계답게 숭고한 결말에 이른다. 따라서 천등산전설은 지명전설이자 의상조사의 인물전설이며, 불교의 신이를 담은 선교미디어 구실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천등산전설은 지명전설의 형식을 끌어온 신화의 구조에다가 고승담의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남매지전설은 지리적 장소만 분명하고 구체적일 뿐 등장하는 인물은 남매와 부자로 막연할 따름이어서 민담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부자로 상징되는 세계의 횡포가 마침내 가난하고 어린 남매를 차례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건의 전개는 인물전설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남매지의 지리적 정보와 무관하게 남매지라는 이름을 끌어와 사회체제의 구조적인 모순을 비극적으로 폭로하는 셈이다. 민담적인 내용을 지명전설의 형식으로 전승한 까닭에 남매지의 지리적 공간에 구애되지 않는 이야기이다. 민중적인 생활세계의 문제를 남매지라고 하는 못을 구체적인 증거물로 끌어들여 형상화한 셈이다. 그러므로 남매지전설은 인물전설의 구조로 민담적 세계관을 말하는 것이라 하겠다.

지금까지 살펴본 지명전설은 지명이나 지명유래와 달리, 어느 것이나 자

연지리에 관한 정보와 무관한 미디어라 할 수 있다. 오히려 역사적 인물이 등장하는 인물전설이나 예사 사람들이 등장하는 민담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다만 지명의 유래를 설명하는 까닭에 지명전설로 인식될 뿐 실제로 지명전설에 담고 있는 정보의 내용이나 서사적 형식은 전설의 틀에 갇혀 있지 않고 신화적 세계관이나 민담적 가치관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지명전설은 구비서사문학으로서 인문학적 지식을 다양하게 담고 있는 설화미디어라고 할 수 있다.

IV. 다중적 지명 유래와 전설의 인문지리 정보

지명은 지리적으로 같은 지점을 일컫는 유일한 이름이라는 점에서 고유명사이다. 고유명사로서 조건을 제대로 갖추려면 구체적인 특정 지점과 그것을 일컫는 이름이 1 : 1로 짝을 이루어야 한다. 그래야 한 이름으로 한 지점을 구체적으로 일컬을 수 있다. 한 이름으로 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일컫는 인명이 고유명사인 것도 이러한 유일무이한 관계에서 비롯된다. 한 이름으로 여러 곳이나 사람을 나타내거나 한 곳이나 사람을 여러 이름으로 나타낼 때에는 고유명사의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

그런데 지명은 고유명사이면서도 다중적 이름을 지닌다. 지명의 내력을 설명하는 지명유래나 지명전설을 조사해 보면 그러한 다중성이 잘 드러난다. 다시 말하면 한 곳의 지명이 여럿인 경우도 있고, 같은 곳의 같은 지명이 여러 가지 내력을 지닌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지명을 단일한 명칭으로 인식하는 편견을 버려야 인문지리 정보의 이해 폭이 넓어진다.

큰마나 새터, 양지마, 섬마, 뱀골, 절골, 못골, 닥실, 술밭, 배나들 등은 굳이 지명유래가 필요 없다. 거의 단일한 의미로 쓰이는 지명으로서 그 정

보를 노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명은 고유명사 구실을 하는 보통명사여서 전국 어디서나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보통명사형 지명 일수록 유래가 특별히 없고 자연지리적 정보를 담는 데 머문다.

그러나 ‘숲당’, ‘지리실’, ‘분통골’ 등의 지명은 그 고유 의미를 쉽게 알아차릴 수 없다. 지명에서 드러난 정보가 일정한 귀뜸을 해 주고 있지만, 무엇이 있다고 해서 못골이거나 닥나무가 많이 난다고 해서 닥실이라고 하는 것처럼 쉽게 추론하기 어렵다. 숲당이나 지리실, 분통 등은 다의적 해석이 가능해서 지명이 뜻하는 내용을 딱 부러지게 하나로 포착하기 어렵다. 실제로 여러 가지 유래로 이야기된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자.

가) 숲당:³⁵⁾ 1)마을 개척 당시에 숲이 우거지고 연못이 있었다 하여 임당(林塘) 또는 숲당, 숲당이로 일컬었다. 2)옛날 하늘에서 쌍방울이 날아와 지금의 당집 자리에 앉아서 여기에 당집을 짓고 마을의 수호신으로 삼았다. 이 당을 일러 숲당이라 일렀는데 지명이 되었다.³⁶⁾

1)의 숲당 또는 임당은 숲과 못을 함께 일컫는 지명이다. 마을의 지리적 구성을 드러낸 것으로서 자연지리의 정보만 내포하고 있다. 2)의 숲당은 당의 지리적 환경과 신이성을 나타낸다. 숲에 방울이 날아와 당을 세우고 당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2)는 1)과 달리 마을의 동신당과 동신신앙 유래를 증언하는 인문지리 정보를 담고 있다.

나) 지리실:³⁷⁾ 1)골의 길이가 길다고 해서 지리실이라 일컬었다. 2)임동면과 영양군 사이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 하여 지리실이라 했다.³⁸⁾

35) 안동시 임동면 망천리 숲당.

36) 『安東의 地名由來』, 安東民俗博物館, 2002, p.349.

37) 안동시 임동면 마령리 지리실.

1)의 지리실은 마을이 자리잡고 있는 골짜기의 형태를 나타내는 지명이다. 긴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다는 지형적 정보를 담고 있다. 2)의 지리실은 특정 두 지점을 연결하는 길의 기능을 나타낸 지명이다. 임동에서 영양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정보는 인문지리적 정보이다. 흥미로운 것은 1)의 유래는 지리적으로 길다는 것을 말하고 2)의 유래는 시간적으로 가깝다는 것을 말한다. 지리실이라는 같은 지명으로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유래를 공유할 수 있는 것이 구술미디어의 융통성이자 지명미디어의 다양성이다.

다) 분통골:³⁹⁾ 1)여기에서 분토(粉土)가 난다고 하여 일컬었다. 2)골짜기의 지형이 오목하여 화장품의 분통처럼 생긴 사실을 나타낸다. 3)마을에서 초상이 많이 나서 분통이 터진다고 하여 분통골이라고 일컬었다.⁴⁰⁾

1)의 분통은 지역의 토질을 나타내는 지명이다. 분토가 많이 난다는 지질정보이다. 2)의 분통은 마을이 생긴 지형을 나타내는 지명이다. 분지형으로 오목하게 생겼다는 지형정보이다. 3)의 분통은 사람들의 심사와 감정을 나타내는 지명이다. 사람들이 잘 죽어서 울화가 치밀었다는 주민들의 집단 정서를 나타낸 셈이다. 그러므로 1) 2)가 지질과 지형을 나타내는 자연지리 정보를 담고 있다면, 3)은 사람들의 생사와 관련되어 있는 집단정서로서 인문지리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다.

하나의 지명이되, 가)는 숲과 못으로 이루어져 있는 마을의 자연지리적 구성과 함께 동신이 깃들어 있는 당의 유래를 나타낸다. 나)는 골짜기가 길게 생긴 마을의 지리적 형상과, 이웃지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정보를 담고 있다. 다)는 분토로 이루어진 마을의 토질과 오목하게 생긴 마을의

38) 『安東의 地名由來』, 安東民俗博物館, 2002, p.347.

39) 안동시 임동면 마령리 분통골.

40) 『安東의 地名由來』, 安東民俗博物館, 2002, pp.347-348.

지형에 관한 정보, 그리고 잦은 초상을 애통하게 여기는 주민들의 심사에 관한 정보까지 담고 있다. 따라서 지명유래가 여럿일수록 마을을 이해하는 폭이 더 넓고 깊다. 자연지리 정보에서 인문지리 정보로 확대되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지명의 다양성에 따라 주민들의 생사문제와 거기에 따른 정서까지 포착할 수 있게 되었다.

한 지명에 대하여 그 유래가 두셋인 경우 제각기 다른 정보를 알려주고 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지명은 고유명사일 뿐 아니라 유래는 하나일 수밖에 없다. 두셋의 지명유래 가운데 하나만 사실이므로 나머지 유래는 사실이 아닌 것이 된다. 따라서 연구자는 어느 것이 사실인가 하는 것을 밝히고 그것을 입증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그러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사실 또한 ‘구성적 상상의 산물이자 복수적으로 구성될 수 있는 것’이기⁴¹⁾ 때문에 한계가 있다.

둘은 지명이 고유명사라 하더라도 유래는 여럿일 수 있으며, 여러 유래가 다 사실일 수 있다. 여러 유래가 해당 지명의 다른 국면을 설명하고 있어서 모두 사실로 인정되어도 문제가 없다. “현실과 허구의 차이는 사물 자체에 내재하는 객관적인 것이 아니다.”⁴²⁾ 그것을 이야기하고 듣는 사람들 사이의 신뢰와 공감에 의해 사실로 믿어지는 것이다. 전승된 유래는 이미 그런 인정을 받은 셈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가능한 여러 가지 유래를 두루 수집하고 그 유래를 근거로 지명이 일컫는 지리적 정보를 다각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형식논리로 보면 앞의 해석이 옳은 것 같으나 실제 현장을 답사해 보면

41) 김영희, 『마을 지형 및 지명 유래담의 공동체 구성력』, 『구전이야기 연행과 공동체』, 민속원, 2013, p.167.

42) 폴 벤즈, 김운비 옮김, 『그리스인들은 신화를 믿었는가?』, 이학사, 2002, p.42.

뒤의 해석이 옳다. 왜냐하면 지명이 일컫는 특정 지점은 한 가지로만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연지리 정보만 하더라도 지질과 지형, 위치, 구성, 식생 등이 다양한데, 인문지리 정보까지 담으려면 가능한 여러 가지 유래가 있을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지명유래가 제공하는 정보가 한 지명을 설명하는 데 서로 충돌되지 않는다. 특히 2개의 유래가 전승되는 경우에는 으레 자연지리와 인문지리 정보로 나누어 있기 일쑤이다. 그러므로 지명유래를 조사할 때에는 한 가지 유래만 듣고 만족하지 말고 끊임없이 다른 유래가 없는지 거듭 조사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지명에 대하여 여러 가지 유래가 있는가 하면, 한 지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명을 가진 경우도 있다. 가장 흔한 것은 우리말을 한자말로 일컫는 경우이다. 내앞과 천전(川前), 솔피와 송천(松川)처럼, 사실상 같은 뜻을 지닌 말이다. 다만 내앞과 川前은 우리말 지명과 한자말 지명이 정확하게 대응을 이루고 있는데, 솔피와 松川은 말뜻이 서로 어긋나 있다. 따라서 松川을 준거로 한자말 중심의 지명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솔피가 아니라 솔내라 일컬어야 한다고 하고, 이와 달리 솔피를 준거로 우리말 중심의 지명을 생각하는 사람은 松川이 아니라 松山이라 일컬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한자지명이 있어서 우리말 지명이 생긴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말 지명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한자말의 번역을 기준으로 지명을 바로잡으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말과 한자말 지명은 들이지만 사실상 같은 정보를 담고 있다. 한 가지 유래로 귀납된 지명이 여럿으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다섯 마리의 학이 날아간 재라고 하여 오학재라 일컫는데, 오학티, 오야티, 오야재, 외기재라고도 한다.⁴³⁾ 서로 다른 지명으로 일컬어지지만 그 유래는 하나여서 같은

43) 안동시 일직면 광연리, 『安東의 地名由來』, 安東民俗博物館, 2002, p.313.

정보를 담고 있다. 그러나 아예 다른 정보를 담고 있는 지명들이 같은 곳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지명이 서로 비슷하면서 다른 경우와 아예 다른 뜻을 지닌 경우가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양상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혼재된 경우를 보면 모든 사례를 한꺼번에 포착할 수 있다.

배나뭇골과 배남골, 백나무골, 회나무골, 이동(梨洞)이 대표적인 보기이다. 마을 이름이 5 가지로 일컬어진다. 梨洞은 배나뭇골의 한자 지명이고 배남골은 배나뭇골을 줄여서 일컫는 지명이므로 실제 지명의 뜻은 3가지이다. 1)배나뭇골은 배나무가 많아서 붙인 이름이다. 2)백나무골은 이 골짜기에 백 가지 나무가 있어서 일컬어진 지명이다. 3)백년 묵은 회나무가 있어서 회나무골이라 일컬었다. 5가지 지명이 전하는 3가지 지역정보는 모두 사실일 수 있다. 배나뭇골이라 하여 다른 나무가 없으라는 법이 없다. 따라서 이 마을에는 백가지 나무는 아니라도 여러 종류의 나무들이 무성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백가지 나무 가운데 회나무가 특별히 거목으로 자라 오랜 수명을 자랑했다면, 그 나무를 상징으로 회나무골이라 일컬을 수 있다.

만일 근거를 갖추지 못하고 배나뭇골을 백나무골이나 회나무골이라 한다면 설득력을 상실하게 되어 지명으로서 입지를 굳힐 수 없다. 배나뭇골에서 몇 차례 변이를 거쳤지만 ‘나무’는 바뀌지 않았다. 따라서 다양한 지명으로 일컬어졌으나, 나무의 범주에 묶여 있었던 까닭에 마을의 수종과 식생 상태를 벗어나지 않았다. 그것은 지명이 마을의 실제 수목생태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 수목의 식생이 여러 지명들을 두루 뒷받침한 셈이다. 이처럼 마을의 환경이 지명의 와전과 변이에 일정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면, 다양한 지명들일수록 마을의 지리적 정보를 전달하는 데 더 효과적인 미디어 구실을 하게 되는 것이다.

지명은 하나이면서 여럿이고 여럿이면서 하나이다. 지리적 공간은 하나

인데 이름이 여럿인가 하면, 이름은 여럿인데 유래나 전설은 하나인 경우가 있다. 하나의 유래나 전설에서 이름 여럿이 생겨날 수 있다. 옛날 와룡과 도산, 예안 등지에서 안동장에 소를 팔러 가다가 고개에 풀이 많아서 소에게 풀을 뜯어 먹였더니 배가 법구(法鼓)처럼 불려서 ‘버긱재’라고 했으며, 이 고개에 시퍼런 풀이 많다고 하여 ‘청머리재’라고도 했다.⁴⁴⁾ 소 팔러 가는 길에 소에게 풀을 배불리 뜯어먹었던 사실을 지명유래로 들려주는데, 그 이면에는 팔러 가는 소일수록 ‘법구’처럼 배를 불려야 좋은 값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도 갈무리되어 있다. 하나의 지명유래에 이름이 여럿인 경우가 있는 반면에, 하나의 지명에 지명유래가 여럿인 경우도 있다.

머지리·머질리(脉質里)·원지(遠地)·원촌(遠村):⁴⁵⁾ 1)공민왕이 홍건적의 난을 피하여 머물렀던 곳이라 하여 머지리 또는 머질리라 한다. 2)일설에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세상이 시끄러울 때 은거하기 좋은 곳이어서, 이곳에 숨어 사는 사람에게 누가 “어디 사느냐?”하고 물으면 “그저 먼 곳에 있다”고 대답하므로, 먼 곳의 마을이라고 ‘원지, 원촌, 머질’이라고 했다. 3)안동 권씨 관관공 후예인 선비가 이곳을 은거지로 삼아 서당을 열고 인재를 길렀으며 후손들이 여러 집 살고 있다.⁴⁶⁾

머지리에는 3가지 지명유래가 전한다. 1)은 공민왕이 피신한 곳이라는 역사적 유래를 근거로 머지리가 왕이 피난지로 삼을 만큼 은거지로서 최적지라는 사실을 말한다. 2)는 역사적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간에서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머지리의 인문지리적 정보를 제공한다. 은거하기 좋은 곳이어서 숨어 사는 사람들이 많았을 뿐 아니라, 자기가

44) 안동시 명륜동 버긱재. 『安東의 地名由來』, 安東民俗博物館, 2002, p.416 참조.

45) 안동시 신안동 머지리.

46) 『安東의 地名由來』, 安東民俗博物館, 2002, p.420.

사는 곳을 외부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 구체적인 지명을 대지 않고 ‘먼 곳에 산다’고 한 까닭에 ‘머지리’ 또는 ‘遠村’으로 일컬었다는 것이다. 3)은 안동권씨가 은거지로 삼아 누대로 살고 있다는 실제 사실에 관한 유래이다.

따라서 ‘머지리’ 또는 ‘遠村’의 실제 지명의 근거가 되는 유래는 사실상 2)일 따름이다. 그러나 2)의 유래도 遠村이나 遠地와 같이 한자지명에는 적절하나 ‘머지리’나 ‘머질리(麻質里)’라는 우리말 지명에는 딱 들어맞지 않는다. ‘머지리’가 ‘먼 곳’이나 ‘먼 마을’을 나타내는 말도 아니고 은거지를 나타내는 말도 아니기 때문이다.

역사적 인물의 은거를 이야기하는 1)과 3)은 2)의 유래를 근거로 역사적 사실을 더 실감나게 이야기하는 동시에 2)의 유래를 뒷받침해 주는 구실을 한다. 1)은 고대사로서 공민왕이 안동에 몽진 왔을 때, 여기에서 숨어 지냈다는 것이고 3)은 근세사로서 안동권씨들이 지금까지 살고 있는 유래를 말한 것인데, 지명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유래이다. 이처럼, 3가지 지명유래 모두 은거지로 적절했다는 2)의 지리 정보에 기초하고 있지만, 실제 담고 있는 이야기는 지명의 직접적인 유래와 무관하다.

‘머지리’나 ‘먼촌’은 은거지라는 뜻과 무관하며 지리적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주변부 마을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중심이 아닌 주변부 마을은 상대적으로 숨어 살기에 적지이다. 지리적으로 먼 곳은 산간오지이기 일쑤여서 처사들의 도피처이자 정치적 유배지이기도 하다. 따라서 은거지라고 하는 인문지리적 정보를 뒷받침하는 역사적 사실을 시대에 따라 여러 유래를 전승함으로써, 지명이 가진 한계를 보완해 주는 구실을 한다. 그러므로 인문지리적 요소는 동일하지만, 그러한 요소에 따라 그 지역에서 형성되는 역사적 유래는 여럿일 수 있다.

지명유래보다 지명전설로 나아갈수록 인문지리 정보들을 더 풍부하게

담고 있다. 전설의 내용이 풍부하면, 하나의 전설로서 여러 지역의 지명전설 구실을 동시에 하게 된다. 선어대 전설이 그러한 보기이다.

선어대 전설: 마씨 총각이 머슴살이를 비관하여 선어대 언덕에서 물에 빠져 죽으려 하는데, 아리따운 여인이 나타나 선어대 소의 인어라고 하면서, '소녀가 내일 밤에 용이 되어 하늘로 오르려고 하면 임하룡(臨河龍)이 나타나 싸움을 걸어올 테니까, 그때 "야, 이놈아!"하고 소리를 쳐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씨 총각은 그러마고 약속을 하고 다음날 밤에 선어대에 나갔다가, 물이 용솟음치고 번개가 치는 가운데 두 용이 뒤엉켜 싸우는 것을 보자 까무라치고 말았다.

다음날 다시 부탁을 받고 이번에는 용기를 내어 "야, 이놈아!"하고 소리쳤으나 모기소리 만했다. 선어대 용은, 총각의 고함소리에 한눈을 팔게 된 임하룡의 목덜미를 공격하여 싸움에 이긴 뒤에, 여인으로 변신하여 총각에게 "낭군님은 서둘러 뒷산으로 피신하기 바랍니다. 소녀는 이제 승천합니다."하고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 총각이 피난하자 소나기가 쏟아지고 강이 범람하여 큰 들판이 생겼다. 총각은 이 들을 차지하여 부자가 되었는데 마씨의 들이라고 '마뜰(마들)'이라 하고, 용이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여 이 지역을 '용상(龍上)동'이라 일컬었으며, 인어가 나타난 곳이라 하여 '선어대(仙魚臺)'라 일컫게 되었다.⁴⁷⁾

이 이야기는 하나의 전설로 인접한 3 곳의 지명을 동시에 설명한다. 선어대라고 하는 깊은 소 위의 절벽을 일컫는 아주 구체적 장소의 지명전설이면서, 행정구역으로서 안동시 용상동을 일컫는 동명전설이자, 더 포괄적으로는 이 일대의 넓은 들을 일컫는 마뜰의 지명전설이다. 지명전설의 내용이 이처럼 설화적 서사구조를 잘 갖추면 동시에 여러 지명의 유래 구실을 할 뿐 아니라, 다른 고장의 지명이나 인물의 이야기로 널리 전승된다.

47) 柳增善, 앞의 책, pp.200-202. '선어대(仙魚臺)에 얽힌 전설'을 축약해서 실었다.

따라서 선어대 전설은 선어대가 있는 지역에서 처음 발생한 것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왜냐하면 이 전설이 선어대나 마뜰, 용상의 고유명사를 설명하는 데 한정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전설은 지명의 내력을 설명하는 지명전설의 한계를 넘어선 설화라고 할 수 있다.

지명 유래나 전설로서 특정 지역을 일컫는 고유명사를 설명하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승천하거나 자기 영역을 지키기 위해 서로 다툼을 벌이는 두 용의 싸움과, 여기에 개입하여 어느 한 용을 도와준 인간의 성취를 다룬 설화로서, 여러 인물과 지명에 두루 얽혀서 전승되는 까닭이다. 따라서 <용비어천가>의 ‘도조설화(度祖說話)’에서⁴⁸⁾ 비롯하여 민담으로 전승되는 ‘용을 쏘아 죽인 사람(1),(2),(3)’ 등에 이르기까지 그 폭이 아주 넓어서 인물전설이기도 하고 민담이기도 하다. 따라서 전승지역의 분포도 전국 16곳이나 되며, 수집된 설화는 30여 편이 넘는다.⁴⁹⁾ 그러므로 문학적 형상성을 잘 갖춘 이야기의 지명전설은 지리적 연관성은 물론 전설로서 갈래의 한계까지 넘어선다.

선어대전설은 말미에 선어대와 마뜰, 용상의 지명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그 자체로 한 편의 훌륭한 설화 구실을 한다. 따라서 지명에 관한 인문지리

48) 『龍飛御天歌』 第22章에 수록된 ‘度祖說話’이다.

도조의 꿈에 백룡이 나타나 “아무 호수에 사는 백룡인데, 흑룡이 내가 사는 곳을 빼앗으려 하니 구해 주시오” 하였다. 잠에서 깬 도조는 예사롭게 생각하고 무심하게 넘겼는데, 다음날 다시 백룡이 꿈에 나타나서 날짜를 정해 주고 거둬 부탁을 했다. 도조는 그 날 활을 갖추어 호수에 나가니, 구름과 안개 속에 두 용이 싸우고 있었다. 활을 쏘아 흑룡을 죽였더니 백룡이 도조 앞에 나타나서 사례하고 앞으로 자손이 크게 흥하리라 했다.“(이동철, 『한국 용설화의 역사적 전개』, 민속원, 2005, p.107의 번역 참조

49) 金鎭亨, 『용 싸움에 끼여든 도조(度祖) 유형 설화의 사시구조와 갈래 차이의 현장론적 분석』, 安東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06, pp.50-52에 5개 지역에서 전승되는 28편의 각편 목록을 제시해 두고, 구체적인 설화는 pp.98-125 자료편에 모아두었다.

정보는 물론 서사문학작품으로서 다양한 의미를 갈무리하고 있다. 종교적으로는 용신신앙의 전통, 사회적으로는 신분 차별과 극복의 문제, 역사적으로는 특정 성씨의 거주 사실, 지리적으로는 홍수의 범람에 의해 형성된 넓은 들, 민속적으로는 깊은 못에 인어 또는 용이 살고 있었다는 믿음 등 아주 많은 해석의 가능성을 담고 있다. 오히려 지명전설로서 기능하는 것은 이야기 말미에 덧붙여진 것이어서 부차적일 따름이다.

그럼에도 지명과 결합된 사실이 중요한 것은 지명전설이기 때문에 전승력을 확보한다는 점이다. 일반 민담은 이야기의 흥미와 거기에 담겨진 의미 때문에 전승력을 지니는데, 지명전설은 지명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전승력이 더 보태진다. 따라서 누구나 ‘선어대’와 같은 신기한 지명을 처음 듣게 되면, “왜 선어대라고 그러지요?” 하고 질문을 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지명유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마련이다. 지명을 묻는 사람이 유래를 묻지 않아도 지명을 답하는 사람은 “여기 지명이 선어대인데, 왜냐하면...”하고 지명과 함께 지명전설을 들려주게 마련이다. 지명전설은 예사 설화와 다른 전승력의 단초를 하나 더 지니고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지명은 전설의 전승력을 가능하게 하는 열쇠말이자 인문지리적 정보를 제공하는 실마리 구실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선어대처럼 지명의 다발을 한꺼번에 끌어안고 가는 지명전설이 있는가 하면, 한 지명에 대하여 여러 가지 전설을 전승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제비원전설이 그러한 보기인데, 제비원은 지명도 선어대처럼 독특하여 지명의 유래를 질문하게 마련이지만, 거기에는 다양한 문화유적과 문화현상들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 전설이 여러 지명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전설이 일정한 다발을 이루며 제비원의 지명과 제비원 지역의 문화유산을 두루 설명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제비원전설은 선어대전설과 꺾 대조적이다.

이러하면, 주민들이 흔히 제비원 미륵이라고 일컫는 거대한 보물급 마애 불이 있을 뿐 아니라, 예전에 미륵불 위에 연자루(燕子樓)라고 하는 우뚝 솟은 전각이 있었고, 뒤쪽에는 연미사(燕尾寺)라고 하는 고찰이 있었으며, 고려시대에 역원제도가 있을 때에는 여기에 연비원(燕飛院)이라는 원(院)이 있었다. 그리고 이 역원에 ‘연이’라고 하는 착한 소녀가 살았다. 게다가 제비원은 성주신앙의 본향으로 노래되는 지역이다. 그러므로 이 지역에 많은 전설이 전승되고 있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제비원이 성주의 본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신이한 소나무가 있었기 때문이다. 만일 제비원 미륵 곁에 대부송과 같은 소나무가 없었다면 성주의 본향으로 지목될 수도 없고 관련 전설들도 생겨나기 어렵다. 전설은 증거물에 의해 형성되고 전승력을 확보하는 이야기이므로 대부송이라는 비범한 소나무가 전설 형성의 결정적인 구실을 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 제비원에는 미륵과 석탑 외에는 새로 지은 절 뿐이다. 대부송이나 성주목으로 이를 만든 소나무도 없다. 제비원전설을 근거로 그러한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만일 미디어 구실을 하는 전설이 없다면, 현장에 가서도 유적과 인물, 역사, 종교, 민속, 예술 등에 얽힌 다양한 인문학적 지식을 알아내기 어렵다. 안동 제비원이 민족신앙의 유일한 성지라는⁵⁰⁾ 사실조차 구비전승의 성주풀이나 전설이 아니면 도무지 알 길이 없다. “우리는, 이미 곁에서 사라져 버린 삶의 양식을 전시하는 박물관을 자랑스럽게”⁵¹⁾ 여기는 것처럼, 제비원 전설은 주민들에게 유물 없는 박물관이자 책 없는 도서관 구실을 하

50) 임재해, 『안동문화와 성주신앙』,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02, pp.599-623에서 자세하게 고찰했다.

51) 마샬 맥루한·괘땡 피오르, 김진홍 옮김, 『미디어는 맛사지다』, 悅話堂, 1995(2쇄), p.137.

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지역의 문화지식인들이나 문화행정가들은 도산서원과 병산서원, 봉정사 등만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관심을 기울일 뿐 상대적으로 제비원에 대한 관심은 소홀하다. 전통적인 지식인들은 서원이나 사찰 같은 유형적 문화유산에 대하여 관심이 크다. 유형문화재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가부장적 문화관이자 지배집단의 독점적 문화의식이다. 그러나 여성주의적 문화관이나 민중적 문화의식은 오히려 무형문화를 전승하는 데 관심을 기울인다. 민중들은 문자가 아니라 설화를 미디어로 자신들의 인문학적 지식을 공유하고 전승한다. 따라서 지배층 지식인들과 달리 민중들은 성주신앙의 본향으로 믿는 제비원에 관한 전설을 풍부하게 전승하면서 인문학적 지식을 공유해 온 것이다. 그러므로 민중들에게 지명전설은 인문학적 지식을 소통하고 공유하며 전승하는 긴요한 미디어라고 할 수 있다.

V. 지명의 시공간적 층위와 미디어로서 미래

지명과 지명유래, 지명전설은 시간적 선후와 공간적 층위가 있다. 같은 곳의 지명이라도 민중들이 일컫는 우리말 지명과 지배층이 일컫는 한자말 지명이 공존하거나 어느 한 쪽이 우위를 차지한다. 지배층은 문자로 기록해야 하는 까닭에 우리말 지명만으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한자지명을 별도로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우리말 지명을 의도적으로 한자화하려고 애썼다.

솔피 또는 솔마를 한자로 표기할 때, 松川이라고 하는 것은 딱 맞아떨어지는 지명이 아니다. 따라서 솔마나 솔피의 소리값에 맞게 기록하기 위하여 『영가지』에는 소을마(所乙麼)라고 표기하였다.⁵²⁾ 솔마 곧 소나무 마을

이 이모음역행동화로 ‘솔매’라고 일컫다가 ‘솔뫼’로 표기된 것이 아닌가 한다. 대체로 우리말 지명이 먼저 있고 뒤에 한자지명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말 지명의 뜻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 경우에 머지리와 遠村처럼, 상당히 어긋나기도 하며, 한자 표기를 위해 솔마를 所乙麼로 기록한 것처럼, 머지리도 억지로 赫質里로 기록하기도 한다.

이처럼 우리말과 한자말 지명은 시간적 선후는 물론 사회적 신분의 층위까지 드러낸다. 조선조 지배집단들은 우리말보다 한자말 지명을 더 즐겨 썼다. 따라서 우리말 지명의 본디 정보를 왜곡한 경우도 있고 우리말 지명을 살려놓은 경우도 있다. 머지리를 赫質里로 표기해 놓으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遠村으로 뜻을 살려서 쓴 경우에는 머지리의 정체성이 살아난다. 그렇다고 赫質里를 무의미하다고 할 수 없다. 머지리의 소리값을 한자어로 증언하는 구실을 하는 까닭이다.

‘비나리’⁵³⁾ 마을의 우리말 지명이 무슨 뜻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한자지명 ‘비진(飛津)’을 보면 ‘비나루’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급물살을 타고 흐르는 나루가 비나리로 일컬어진 것이다. 이처럼 우리말 지명은 오랜 세월 전승되는 동안 소리값이 바뀌어 버려서 뜻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말과 함께 한자말 지명도 알게 되면 지리적 정보를 획득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지명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하는 것처럼 한자말 지명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명 자체가 자연지리적 정보를 고스란히 담고 있어서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도 지명유래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명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다른 정보를 담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하회마을에는 큰고개와 작은고개가 있는데, 한갓 고개의 크기를 나타낸 것이

52) 『永嘉誌』 1卷, ‘各里’조. “府의 동쪽 15리에 있다.”

53) 봉화군 명호면 풍호1리 비나리.

라고 여기고 그 유래를 조사하지 않으면 중요한 사실을 놓치게 된다. 지명 조사를 해보면, 요즘은 모든 사람들이 큰고갯길로 하회마을에 들어가지만, 과거에는 신분에 따라서 큰고개와 작은고개로 길을 나누어 다녔다는 사실이 포착된다.

큰고개는 길이 멀고 재가 높지만 넓은 길이어서 양반들이 말을 타고 다니는 길이었다. 수레도 이 길로 드나들었다. 평민들은 지름길이자 좁은 길인 작은고갯길로 다녔다. 신분에 따라 고갯길이 큰고개와 작은고개로 마을 출입구가 나뉘어져 있었던 셈인데, 아랫사람들은 짐을 이고 지고 다녀야 하는 까닭에 지름길인 작은고갯길이 더 편했다고 한다.⁵⁴⁾ 큰고갯길로 다니면 양반들과 마주칠 때마다 인사를 해야 하는 까닭에 불편하므로 굳이 큰고갯길로 다닐 일이 없었다. 작은고갯길이 오래 전에 폐쇄되었기 때문에 길의 위치를 아는 사람도 아주 드물었고, 길에 따라 통행자의 신분이 달랐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거의 없었다. 그러므로 지명유래 조사를 하게 되면 뜻밖의 인문지리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신분이나 지체와 다른 세계관적 차이가 지명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지명을 붙이는 집단의 정체성에 따라 지명이 세계관적 층차를 보이는 까닭이다. 청량산의 경우 연화봉, 금탑봉, 축융봉, 향로봉과 금강대, 원효대, 자비대, 의상대, 반야대 등은 불교적인 지명이다. 청량산에는 원효가 창건한 것으로 알려진 청량사를 비롯하여 천년 고찰인 연대사(蓮臺寺)와 27개소의 암자가 있었던 까닭에 불교와 관련된 지명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조선조에 유학자들이 이 일대를 차지하면서, 사찰은 피폐하게 되고 지명도 유교적인 지명으로 바뀌게 되었다. 탁필봉과 연적봉, 독서대, 선학봉, 자란봉, 어풍대, 학소대, 청풍대 등은 대체로 유교와 관련된 지명이다.

54) 류시환(남, 64세)씨 말씀, 2009년 2월 18일 이 어른과 함께 하회마을을 답사하면서 조사한 내용이다.

그런가 하면 청량산의 여러 지명에는 청량산에서 일정한 삶을 보냈던 인물들의 전설도 동반하게 마련이다. 흔히 청량산의 2성(二聖)인 원효와 의상, 그리고 4현(四賢)으로 일컬어지는 김생, 최치원, 요극일, 영랑과 관련된 지명이 전하기 때문이다. 2성의 유적으로는 원효봉과 원효대, 원효암, 원효굴이 있는가 하면, 의상봉과 의상암, 의상굴, 의상대가 있다. 최치원 유적으로는 치원봉과 치원대, 치원암, 고운굴, 총명수, 원중암이 있고, 김생의 유적으로는 김생굴, 심생폭포, 김생필적 등이 있다. 지명이 구체적인 인물을 지목하고 있으며, 청량산과 관련하여 이들 인물전설도 함께 전승되고 있다. 김생굴전설은 곧 김생전설로서⁵⁵⁾ 지명전설과 인물전설이 함께 간다.

그런가 하면, 주세붕(周世鵬)이 청량산의 여러 지명을 고쳤다. 보살봉(菩薩峰)을 자소봉(紫蘇峰)으로, 필봉을 탁필봉(卓筆峰)으로, 의상봉을 연화봉으로, 대봉(大峰)을 ‘장인봉(丈人峰)’으로 개명을 했는데, 한결같이 중국의 사례를 근거로 고친 것이다. 따라서 청량산을 점유한 집단의 정체성에 따라 지명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청량산 지명에는 어떤 인물들이 관련되어 있으며, 그들의 어떤 행적을 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일이 인문지리의 인식을 확대하는 길이다. 그러므로 지명은 그 공간을 향유하는 집단에 따라 종교적 세계관과 철학적 가치관을 함께 담고 있는 것은 물론, 그 공간을 점유하며 일정한 삶을 살았던 특정 인물의 개인사와 문예작품까지⁵⁶⁾ 알려주는 미디어 구실을 하는 셈이다.

현대는 지식정보 사회이자 미디어의 시대이다. 디지털미디어가 정보전

55) 김생이 굴에서 9년 동안 서도를 익히고 만족하여 세상에 나서려고 했는데, 밤에 어떤 여인이 찾아와 자기는 그 동안 배를 짚으니까 솜씨를 겨루어 보자고 했다. 시합 결과 여인의 배는 곱고 고른데 김생의 글씨는 고르지 않았다. 김생이 크게 각성하고 다시 1년을 더 글씨에 힘써서 마침내 자기 글씨체를 완성했다고 하는 전설이다. 김생이 머물러 글씨를 썼던 굴을 김생굴이라 한다.

56) 퇴계는 청량산에 머물면서 많은 시를 남겼다.

달의 주류를 이루면서 문화산업을 이끌어간다. 문화산업의 알맹이가 디지털 미디어의 플랫폼(platform)에 담아 낼 수 있는 창조적인 콘텐츠이다. 그 콘텐츠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 이야기이자 설화이다. 따라서 덴마크 미래학자 롤프 얀센(Rolf Jensen)은 미래사회를 『드림 소사이어티』로⁵⁷⁾ 규정하고 신화의 사회 또는 스토리텔링의 사회로 전망한다. 설화는 그러한 미래사회를 열어가는 가장 중요한 콘텐츠이자 무형의 미디어이다.

설화가 과거에는 한갓 구비전승의 이야기로 존재했지만, 이제는 문화콘텐츠로서 광고와 게임, 캐릭터, 애니메이션, 영화, 드라마 산업과 함께 간다. 이야기와 함께 가지 않는 문화산업은 성공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명전설을 포함한 모든 설화는 스스로 미디어이자 새로운 미디어의 콘텐츠 구성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설화는 ‘미디어의 미디어’로서 메타미디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지명은 자연지리 미디어이며 지명유래는 인문지리 미디어이고 지명전설은 인문학의 모든 지식을 담고 있는 통섭미디어이다. 이러한 미디어가 그 자체로 소중하지만 인터넷지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쓰임새가 높다. 지명유래와 지명전설을 인터넷지도의 지명에 담아두어서 누가 언제 어디서든 클릭하면 그 정보를 읽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때로는 자기가 포착한 정보를 덧붙여 담아둘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지명전설은 유물 없는 박물관이자 책 없는 도서관이며 방송장비 없는 방송국이자, 사람 없는 문화유산해설사나⁵⁸⁾ 다름없기 때문이다. 누구나 박물관 사서이고 도서관 관장이며 방송국장이 될 수 있는 가장 민주적인 미디어가 지명전설이다.

57) 롤프 얀센 지음, 서정환 옮김, 『드림 소사이어티』, 한국능력협회, 2000.

58) 임재해, 「설화에 의한 문화주권 인식과 마을문화 읽기」, 『어문학』99, 한국어문학회, 2008, pp.68-70에서 설화의 메타문화 기능을 논의하면서 설화를 ‘문화유산해설사’로 은유하였다.

달리 말하면 설화적 형상성을 갖춘 지명전설은 형체가 없는 무형의 미디어이자 무한의 미디어이며, 문학적인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창조적 미디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수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지명을 말살하고 도로명으로 주소를 바꾼 것은, 지명이 갈무리하고 있는 인문학적 지식을 일거에 갈아뭇개는 일이자 창조적 상상력의 나래를 꺾어버리는 일이다. 지명은 특정 지점을 찾아가는 지리적 위치 개념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와 철학의 공간을 만나고 인식하는 인문학적 세계관의 개념이다. 그러므로 인문학계에서는 도로명 주소를 반대하는 운동과 함께, 지명 유래와 전설 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여 지명미디어로 전승되는 인문학문의 정보와 지식을 총체적으로 수집하고 보존하는 운동을 벌여야 마땅하다. 왜냐하면 지명 자료가 담고 있는 인문지리 정보야말로 땅의 인문학문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경산문화대사전』, 경산시립박물관, 2009.
 『國譯 永嘉誌』, 安東靑年儒道會, 1996, p.342.
 『安東의 地名由來』, 安東民俗博物館, 2002.
 『永嘉의 脈』, 安東郡, 1991, pp.151-152.
 『永嘉誌』 1卷.

2. 논문 및 단행본

- 강재철·홍성남·최인학 편, 『退溪先生 說話』, NOSVOS, 2011, pp.29-49.
 김대호 외, 『미디어 생태계』, 커뮤니케이션북스, 2011, p.66.
 김영희, 『마을 지형 및 지명 유래담의 공동체 구성력』, 『구전이야기 연행과 공동체』, 민속원, 2013, p.167.
 김정하, 『정치인식과 민간신앙에 의한 삼척의 지명 고찰』, 『江原民俗學』22, 강원도민속학회, 2008, pp.77-98.
 金鎮亨, 『용 싸움에 끼어든 도조(度祖) 유형 설화의 사사구조와 갈래차이의 현장론적 분석』, 安東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06, pp.50-52.
 신태수, 『지명전설의 구조와 의미 -고령 지방의 전설을 중심으로-』, 『문학과 언어』, 文學과 言語硏究會, 1989, pp.69-105.
 심민호, 『지명유래담에 나타난 풍수지리적 사고』, 『민속학연구』17, 국립민속박물관, 2005, pp.21-44.
 柳增善, 『嶺南의 傳說』, 螢雪出版社. 1971, pp.229-231.
 이동철, 『한국 용설화의 역사적 전개』, 민속원, 2005, p.107.
 이영식, 『횡성의 지명전설과 태종의 관련성 연구』, 『江原民俗學』20, 강원도민속학회, 2006, pp.463-481.
 이홍숙, 『지명에서 생성된 전설들』, 『士林語文學硏究』17, 士林語文學會, 2007, pp.135-162.
 _____, 『경남 지명전설의 생성적 의미와 활용방안』, 『鄉土史硏究』15, 韓國鄉土史硏究全國協議會, 2003, pp.89-115.
 이효걸, 『천등산 봉정사』, 지식산업사, 2000, p.21.

- 任世權, 『臨河寺塔址』, 安東大學博物館, 1988.
- 임제해, 『내려오는 전설』, 안동시 편, 『내 고장의 자취』, 안동시, 1982, pp.102-103.
- _____, 『풍기지역 구비문학의 전승양상과 지역적 성격』, 『民俗研究』 3, 安東大學民俗學研究所, 1993, pp.57-114.
- _____, 『구비문학의 연행론, 그 문학적 생산과 수용의 역동성』, 『口碑文學研究』7, 한국구비문학회, 1998, pp.1-48.
- _____, 『설화의 사료적 성격과 새 역사학으로서 설화연구』, 『역사민속학』12, 한국역사민속학회, 2001, pp.243-276.
- _____, 『안동문화와 성주신앙』,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02, pp.599-623.
- _____, 『계비원 전설의 설화문화학적 해석과 성주신앙의 본향 인식』, 『전설과 지역문화』, 민속원, 2002, pp.261-294.
- _____, 『안동의 비보풍수 이야기』, 민속원, 2004, pp.107-114.
- _____, 『설화에 의한 문화주권 인식과 마을문화 읽기』, 『어문학』99, 한국어문학회, 2008, pp.68-70.
- _____, 『인물과 자연이 어우러진 빼어난 모습살이』, 『전통과 혁신의 마을 내앞』, 민속원, 2013, p.4.
- 조정현, 『방학중 전설자료』, 『천하잡보 방학중의 해학과 풍자』, 민속원, 2014, p.321.
- 전신재, 『인제군의 지명전설』, 『江原民俗學』22, 강원도민속학회, 2008, pp.277-297.
- 홍성규, 정미영, 『서울지역 지명전설의 사례와 콘텐츠 활용 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권 12호, 한국콘텐츠학회, 2013, pp.507-518.
- 롤프 엔센 지음, 서정환 옮김, 『드림 소사이어티』, 한국능력협회, 2000.
- 마살 맥루한 · 쾨팅 피오르, 김진홍 옮김, 『미디어는 맛사지다』, 悅話堂, 1995, p.137.
- 마셜 맥루언, 김성기 · 이한우 역, 『미디어의 이해』, 민음사, 2002, p.35.
- 폴 벤느, 김운비 옮김, 『그리스인들은 신화를 믿었는가?』, 이학사, 2002, p.42.

Abstract

The Media Function of Folk Tale and the Anthropogeographical Information of Geographical Name Legend

Lim, Jae-Hae

Folk tale plays a role of media which extends the function of the language. Folk tale containing the any kind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travels far and wide and is handed down long, which extends the spatio-temporal range. Geographical name will contain a certain geographical information. However, as we go toward the origin and legend of geographical name, the information will be huge in its amount, high in quality and rich in anthropogeographical diversity.

A variety of cases will happen in that not only does a geographical name have one meaning as a proper noun but also a place has more than a geographical name, furthermore a legend has more than an origin of geographical name. A geographical name is normal to have one in the light of proper noun. However, it should be admitted that a geographical name has more than one in the light of media containing the anthropogeographical information. As a geographical name reflects the age, the classes, the historical facts, the recognition of diversity would widen the dimension of anthropogeographical understanding.

Rich anthropogeographical informations of history, religion, society, people, culture in that area as well as the geographical location information are contained in the geographical name legend. Not only would attention to the geographical name legend recover the lost history, but also it would capture the multi-faceted knowledge and information of humanities as oral literature. Accordingly, the research of geographical name legend would make it possible to elucidate the values of the ruling class revealed in Chinese character geographical name and other people's world-view.

Geographical name and geographical name legend are not the geographic coordinates for a specific spot but a museum of anthropogeographical information in which we can come across and recognize the space of history, culture and philosophy. However, reorganized road names based address have obliterated the geographical names containing the anthropogeographical information. It is desirable that a nationwide survey of the origin and legend of geographical name should be conducted to collect and preserve the anthropogeographical information on the whole along with the campaign against the road name based address in the circle of the humanities. This is why the very anthropogeographical information containing the data of geographical name can vitalize the humanities of earth.

Key Word : Geographical name legend, Anthropogeography, Media, World-view,
Road name based address, Humanities of earth.

임재해

소속 : 안동대학교 민속학과 교수

주소 : (760-749)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1375

전화번호 : 010-5371-8328

전자우편 : limjh@anu.ac.kr

<p>이 논문은 2015년 2월 28일 투고되어 2015년 3월 31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5년 4월 10일 게재 확정됨.</p>
--